고창군 '귀농귀촌 1번지' 입증

'시니어 산업 대상' 귀농귀촌도시부문 초대 수상자로 선정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의 시니어 산업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부문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의 시니어 산업 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상이다.

이 상은 '고령화 사회'라는 범국가적 과제 해결과 기업 및 지자체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시니어 산업 각 분야별 우수 기업 및 지자체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 시상한다.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이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의 시니어 산업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부문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니어 산업 대상으로 선정된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기구인 귀농귀촌팀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홍보와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140여명의 도시민을 유치하는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를 고창군 귀농·귀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귀농귀촌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에서 유일하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어 전국 귀농귀촌인 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6차 산업 및 고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의 거점 마련으로 귀농귀촌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으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잘 이루어 누구나 찾아와도 고향의 따뜻하고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인의 본향'이다"라며 "살기 좋은 청정지역인 고창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보건의료원, 4월 5일~2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순창군이 최근 주거환경 및 식생활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증상 완화를 돕기 위한 아토피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아토피 예방교실은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 매주 화요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생활에서의 예방요령, 환자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천연비누 만들기 및 천연보습제 만들기 등 체험교실도 같이 운영해 재미도 더할 방침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L20)으로 진단받은 등록자에 대하여는 아토피 무료상담 및 2개월에 1회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 진단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검사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토피로 인한 괴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방교실 운영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군민들은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전화 650-523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구인규기자

로컬플러스

남원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남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및 수도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시는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시행하여 현재 전 세대 중 39.2%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온누리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마일리지 형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1세대 당 1명)는 관내 거주 가정(공동주택 개별세대 포함)과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로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으면 가능하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읍면동사무소, 시청 환경과(☎620-6235)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작은 목욕탕' 3호 신평면 건립 추진

4억 투자, 8월 개장 목표

임실군이 군민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평면에 '제3호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작은 목욕탕 사업은 국비 1억원 등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8월 개장을 목표로 온탕과 냉탕, 사우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면적 139㎡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14년 운암면, 2015년 강진면에 이어 올해 착공 예정인 신평면 작은 목욕탕은 그동안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함과 시간, 비용 낭비 해소는 물론,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신평 문화회관' 부지 내에 조성돼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신평면 작은목욕탕 3호점 조감도

심민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새로운 소식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방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 '작은 목욕탕'은 남·녀 격일제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무료, 65세 이상과 미취학 아동은 1000원, 일반주민은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작은 허브정원 만들기 경연대회'

남원시, 4월 11일~15일 참가자 접수… 5월 11일~12일 개최

남원시는 허브식품융복합 6차산업을 테마로 관광상품개발 및 허브체험관광활성화를 통한 허브산업의 중심도시 '남원허브'를 알리기 위해 '작은 허브정원 만들기 경연대회'를 오는 5월 11일과 12일에 개최한다고 밝히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남원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작은 허브정원 만들기 경연대회'는 남원광한루원 정문 맞은편 도로에 10개의 작은 허브정원으로 조성되며, 참가자별 면적은 9㎡(2.7평) 이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참가자 신청 자격은 만 19세(대학생 포함)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학과 졸업 및 자격증 소유자, 관련업체(단체) 운영자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063-620-6923)에서 접수한다.

참가자는 접수된 서류평가를 통해서 10명(또는 팀)이 선발되며, 재료비 100만원이 행사종료 후 지원되고, 본선을 통해서 수상자 4명을 선발해 최고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작은 허브정원 만들기 경연대회'는 사랑, 꿈, 삶, 힐링, 치유 중 1개 단어 이상을 주제로 표현하고 꽃과 허브, 조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은 정원을 조성하면 된다.

조성된 작은 허브정원은 제86회 춘향제 기간(5월13일~16일)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신평면 · 6탄약창 섬진강 환경정화활동

임실군 신평면은 '2016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섬진강 수변 환경정화활동 및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신평면 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및 탄약창 장병 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질자원 보호를 위해 섬진강 상류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버린 생활쓰레기 및 오물 등을 수거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과 생활 속 물 절약 의식 전파를 위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깨끗한 신평면 만들기에 앞장섰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행복누림마을' 현판식

임실군은 농촌지역 생명존중문화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강진면(강진, 강서, 갈담, 학석) 4개 마을의 '행복누림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

23일 강진면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홍식 군의장,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범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행복이 임실군 전체로 퍼져나가 더불어 함께 사는 군을 만드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역 자살예방 시범사업인 '행복누림마을'은 지역 정신건강진단 조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살예방 캠페인, 교육활동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서, 성희롱 예방 교육

고창경찰서는 21~22일 조직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염숙희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며 피해발생 예방에 힘써 피해발생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랑과 이해의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